



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19호)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3.11

미션
MISSION

사랑으로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25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나눔과 행복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2023 KINMoS 추계학술대회

Korean Intraoperative Neural Monitoring Society

2023. 11. 24.(금)~ 25.(토)

BEXCO 제2전시장 3F 회의실

초록접수 마감일 2023년 11월 10일(금)

사전등록 마감일 2023년 11월 18일(일)

2023년 대한신경모니터링학회 추계학술대회 (11.24~25) 백선미 병원장님(좌장) 참석

15:30 - 16:20	Session 3. Neural Monitoring and Locally Ablative Therapy	백선미 (나눔과 행복병원 원장) 이용상 (연세의대 외과)
15:30 - 15:55	Neural Monitoring During Locally Ablative Therapy in Canine Model	성익숙 (부산의대 이비인후과)
15:55 - 16:20	Radiofrequency Alation (RFA)	안동빈 (경북의대 이비인후과)

대한신경모니터링학회는 2014년 연구회로 출발하여 2015년 11월 21일 첫 심포지엄을 시작한 이래 어느덧 8년이 되었고 매년 심포지엄과 워크샵을 개최하며 우리나라에서 신경모니터링을 보급하고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여러 교수님들을 초빙하여 갑상선 분야 전반에 걸쳐 기초적인 지식부터 기초지식, 최신 지견, 여러 노하우를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되었고, 또한 신경모니터링에 관해 깊은 연구를 수행했던 Gregory Randolph, Catherine Sinclair, Haythem Najah, Tzu-Yen Huang, Yu Wang, Catherine Sinclair 교수들을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선미 병원장님께서 11/24(금) 대한신경모니터링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하여서 'Session 3. Neural Monitoring and Locally Ablative Therapy' 주제로 좌장을 맡아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삼성 웨어러블 로봇 '봇핏' 사외테스트 참여 (11.09)



삼성전자가 보행보조 로봇 '젬스'의 상용화 여부에 이목을 집중시키며 신성장동력 중 하나인 로봇 사업인 '엑스원(EX1·프로젝트명)이라는 보조 로봇 출시를 예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EX1은 우리병원 재활의료 김연희 원장님(성균관의대 명예교수)이 책임연구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서 검증되었고, 올해 5월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초 삼성 웨어러블 로봇 '봇핏' 실물이 나오면 내년 상반기 출격예정이라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연구를 완료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베타 테스트를 완료하였고, 사외테스트로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두 곳이 유일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외테스트 참여는 직원들의 건강증진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재활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치료사 선생님들이 먼저 체험을 해보고, 그 경험을 토대로 피드백을 주고받아서, 추후 의료기로 인증받았을 때 재활치료를 받는 참여자(환자)분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에 큰 도움을 드릴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간호팀 응급훈련 (11.28)

심정지 발생에 대비해 상황마다 변할 수 있는 각자의 역할을 익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행함으로써 실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응급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과 훈련의 목표는 인증규정집에 근거하여 심정지 발생을 대비하는 것으로, 양질의 심폐소생술을 숙지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관성 있고 능숙하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전체 응급훈련을 통해 상황별 주의사항을 숙지한 후 각 생활동내에서 별도 교육을 통해 모든 팀원들이 모두 숙지할 수 있도록 한번씩 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휠체어스쿨 (11.14)

휠리 & 낙상대처방법

박OO외 7명의 참여자와 휠리 및 휠체어에서 낙상했을 때 대처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중 저번달 초급과정을 마친 박, 박, 염 님은 휠체어스쿨에서는 휠리가 처음이었지만 치료시간에 어느정도 연습이 되어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앞바퀴 드는 동작은 어렵지 않게 하였고 2주뒤 바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4명 중 2명은 휠리를 함께하며 노하우를 공유하였고 2명은 전동휠체어 연습을 하였습니다. 낙상대처방법 시간에는 낙상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넘어질 때 자세, 혼자 힘으로 휠체어로 올라오는 방법,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직접 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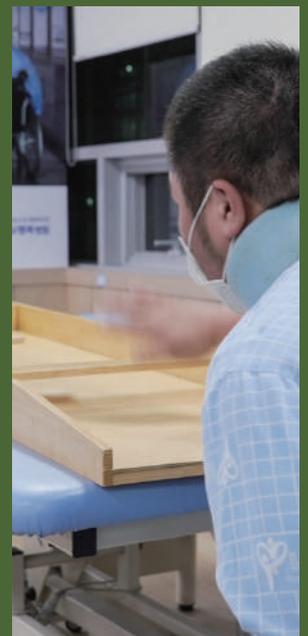


뉴스포츠 (11.21)

오랜만에 진행하는 뉴스포츠로 처음 접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즐거워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스포츠는 신체의 기능을 넘어 정신이 신체를 지배하는 듯한 모습이 여럿 나오면서 충분한 연습을 통한다면 모두가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듯합니다.

많은 참여자분들이 스포츠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연하치료 종결 참여자 상장 수여하기 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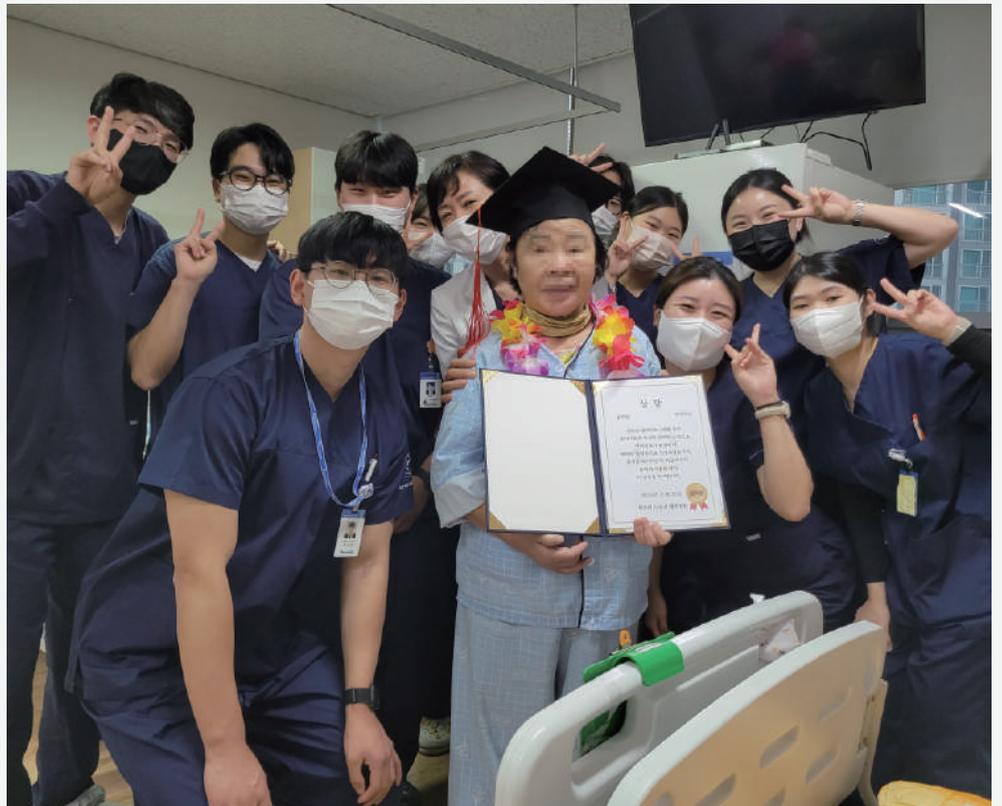
꿀꺽왕 수여

(11.03 / 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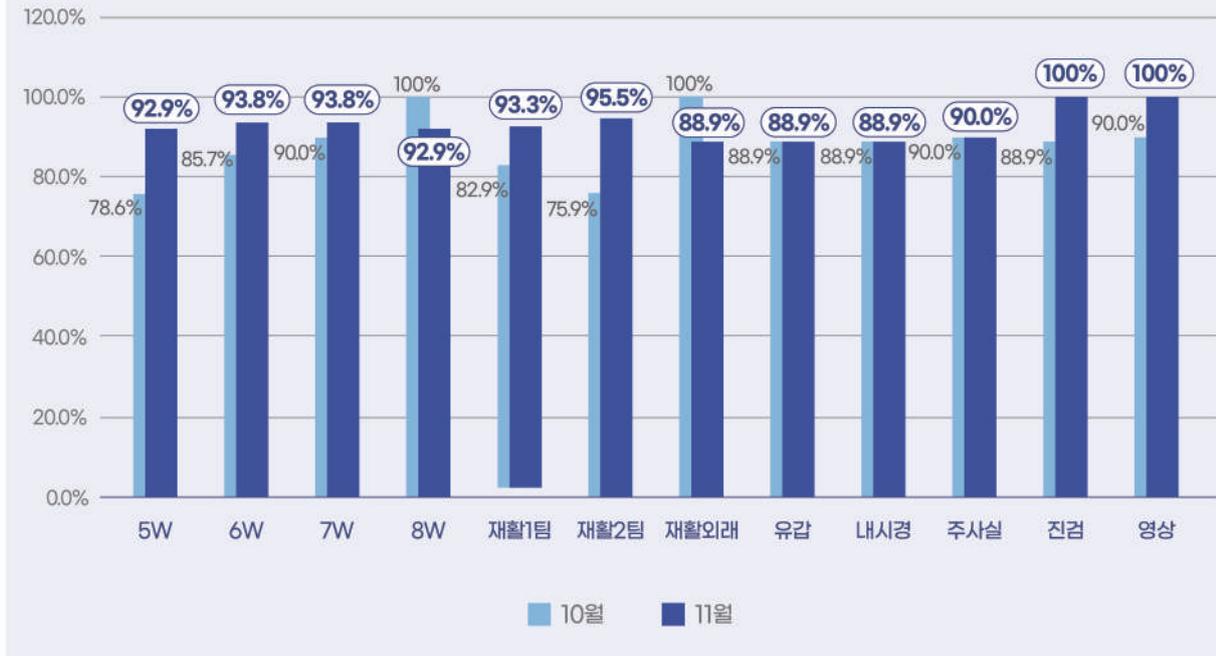
재활 2팀 연하파트에서 [연하치료 종결 참여자 상장 수여하기]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연하파트에서 올해부터 실시하게 된 TF는 참여자분들이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삼킴 기능이 향상되어 연하치료를 종결하게된 분들을 기념하고자 "꿀꺽왕"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상장을 수여하고 연하치료실 명예의 전당에 명패를 올리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꿀꺽왕에 707호 김○○님과 504호 정○○님이 선정되었습니다. 두 분다 병실을 깜짝 방문하여 시상식을 진행하였구요. 행복해하시는 두 분을 보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담당자 선생님들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11월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



이달의 손위생 우수부서 ‘영상의학팀’, ‘진단검사의학팀’ (11.16)

11월 손위생수행률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영상의학팀과 진단검사의학팀이 100%로 공동 1등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엔 참여자분과 고객들의 감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손위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손위생을 했는지 물어봐주십시오~
감염예방을 위한 손위생은
항상 준비되어있습니다!



장애수용을 넘어 일상속으로 부산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조은호 강사 (11.04)

‘진정한 배려’라는 주제로
부산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조은호강사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 장애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장애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장애인식, 수용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게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재활생활

한국문화예술복지부 러브뮤직
김미애 강사님의 웃음 가득한
노래교실, 색소폰 연주자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이자
레크레이션 시간, 참여자, 보호자,
간병사, 직원이 함께 웃음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목청껏
노래하고 싶었던 마음을 맘껏 펼친
신명나는 날이었습니다.



웃음 레크레이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문화예술복지부 러브뮤직 김미애 강사 (11.25)



함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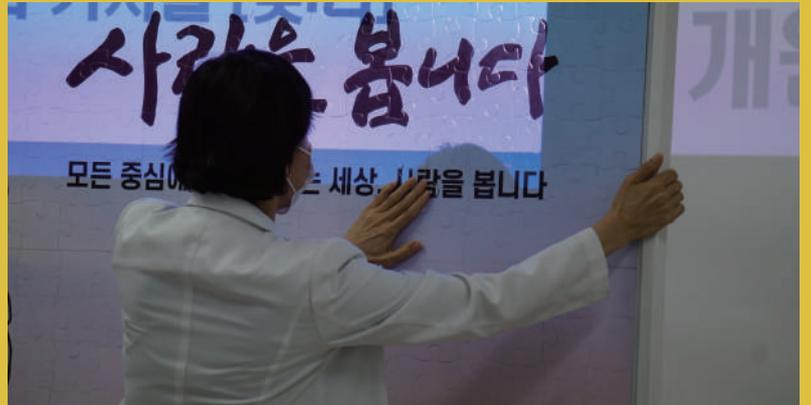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열린 소리를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2023 함께 가치있는 한걸음, 같이의 가치를 빛:다 개원 12주년 기념식 (11.06~07)



병원 개원 12주년 기념행사가 사전행사 포함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전날 사전행사로 9층 소망정원에서 추억의 뽑기, 룰렛, 신발 던지기 등 즐길거리와 인생네컷, 소망의벽, SNS이벤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모셔 캘리그라피, 타로카드 체험도 함께 진행하였고, (사)나행동 주관으로 나눔마켓도 열어서 판매 수익을 전액 기부하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당일 사전행사로 장기근속 시상식 및 핵심가치 추천서 우수자 상품 전달식을 오전에 진행한 후 오후 본 행사로 들어갔습니다.

나이테, 특별상, 핵심가치상, 순위생우수상, 장기근속, 새로고침 프로젝트 시상과 핵심습관 발표까지 120분간 진행함으로써 병원 미션과 핵심가치에 부합되는 노력과 성과를 만들어낸 개인과 팀에 감사함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달 동안 함께 준비한 사람들, 개원기념식 준비 TF 구성원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광주365재활병원 본원 견학 (11.21)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광주365재활병원에서 11명의 임직원분들이 본원 견학을 위해 소중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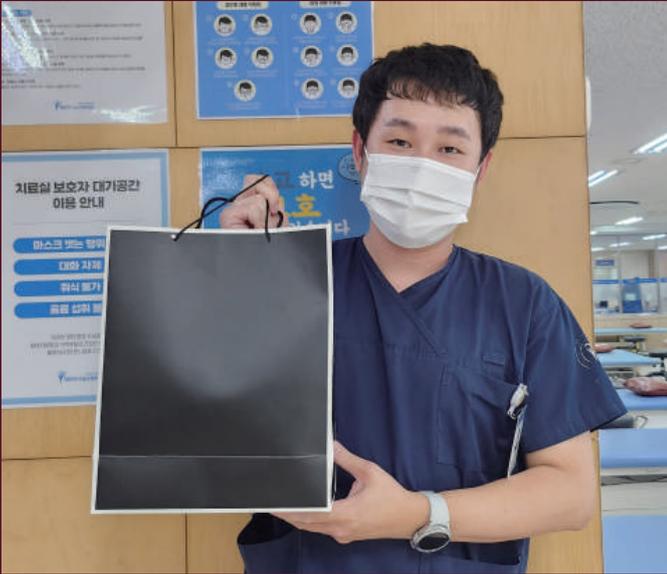
광주365재활병원은 2020년 보건복지부의 제1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만큼 아주 유명합니다. 이번 2023년에도 제2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도 연속 지정되었고, 하남3지구에 신축병원에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여태껏 가장 많은 11명의 손님들을 모시고 무려 2시간 가까이 병원 라운딩을 하였으며, 라운딩을 마치고 6층 회의실에 다 같이 모여 재활의료 김연희 원장님과 함께 병원에 대한 피드백 및 재활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출산예정 직원에게 드리는 출산휴가 선물 재활치료1팀 유용한 주무, 재활치료1팀 권윤경 주무 (11.03 / 11.28)



일상재활센터(낮병동) 출석왕, 자립왕 수상 (11.03)

일상재활센터에서는 '나 스스로 한다'라는 자립활동을 통해 참여자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성취감을 느끼고, 가정과 사회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사람들에게 축하받으며 지속적으로 역할을 찾고 의미와 목적이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출석왕 & 자립왕'을 매월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우수 출석왕에는 이○○님, 주○○님이 선정되었고, 우수 자립왕에는 이○○님, 박○○님이 선정되었습니다.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집단상담 프로그램 '마음톡톡' (11.28)

집단상담 마음톡톡 프로그램은 8명 이내의 소그룹으로 구성되어 함께 마음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0월부터 총 8명 참여하여 11월 28일 5회차로 마무리했습니다.

낯선 참여자, 보호자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경청하는 일은 사실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성향이 맞지 않는 관계도 있고 서로 다른 의견도 존재하며 언어적 소통이 어렵기도 하고, 나의 아픔이 깊어 이루 다 말하지 못하고 눈물로 대신할 때도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 나의 관점을 새롭게 하고 서로의 대화 속에서 어려웠던 마음을 가벼이 위로와 격려를 건네며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내 안의 힘을 들여다보고,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일상재활센터 그룹치료 프로그램 '팔 눈 찜질팩 만들기' (11.15)

이번 달엔 건강식품 팔을 이용한 팔 눈 찜질팩 만들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 아이스브레이킹 너도나도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겨울 주제로 각자 생각하는 겨울 단어를 적고 공유하며 겨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팔이 주는 효능(부종 제거, 면역력 증가, 노폐물 해소)에 대해 배우고 참여자, 보호자와 함께 팔 눈 찜질팩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팔의 고유 질감을 손끝으로 직접 느끼는 활동을 통해 소근육을 자극하고 완성 후 팔 눈 찜질팩으로 눈에 쌓인 피로를 풀며 몸과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벤트 프로그램 '크리스마스 화분 만들기' (11.23)



이번 달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잘 어울리는 아이템 '크리스마스 화분 만들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아이스브레이킹으로 특정 단어를 본 후 그림을 신속하게 그리고 맞는 게임, 캐치마인드를 통해 병원생활에서 쌓인 피로를 풀며 기분전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다음 참여자, 보호자가 함께 크리스마스 화분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코알라 다육이 화분에 목도리와 산타모자를 직접 씌우며 소근육을 자극하였고 소망을 담은 연말 편지 쓰기로 미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감사한 가족에게 크리스마스 선물할 수 있어 즐거워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11월의 신규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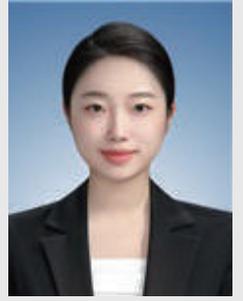
재활간호팀(7W) 권이정 간호사



재활간호팀(8W) 김현미 간호사



재활간호팀(5W) 박주은 간호사



재활간호팀(8W) 최유진 간호사



재활치료1팀 김한길 물리치료사



재활간호팀(5W) 차정인 간호사



재활간호팀(6W) 이경민 간호사



재활간호팀(6W) 홍영진 간호사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상속으로 프로젝트 가정방문

(11.03 / 11.06)



이○○님은 본원의 재활치료 덕분에 거동이 가능하게 되어 자택 퇴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자택에서 생활하던 중 2층 주택 외부 계단 경사가 가파르고 안전 손잡이 미설치로 낙상 위험이 발생하여 일상속으로 프로젝트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운대구에서 진행하는 주거개선사업이 있지만 외부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회사업팀과 의논 끝에 ‘(사) 나눔으로 행복한 동행’에 신청하여 엄격한 심사 끝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회사업팀과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과 함께 가정방문을 하였고 주거환경 점검을 통해 외부 계단 양쪽 안전손잡이와 보일러실 방화문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다음 재활치료 1, 2팀, 사회사업팀,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과 함께 전○○님의 가정을 방문하여 주거환경을 점검하였습니다. 전○○ 참여자는 현재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호자 도움 하에 이동이 가능하신 분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외부 환경, 침실, 화장실 입구, 화장실 내부에 이르기까지 곳곳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평가하였습니다. 전○○님의 같은 경우 2층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좌측에 안전바 설치 필요했으며 화장실에는 세면대 및 샤워기가 없어 보호자 도움 없이 혼자서 화장실 사용이 어려워 환경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최종 회의를 통해 자택에서 안전하게 이동 및 생활할 수 있도록 외부 계단 옆 안전바 설치, 화장실에는 안전바 및 샤워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세면대 설치 등 전○○ 참여자의 주거환경개선 계획과 목표를 세웠습니다. 가정방문에는 참여자와 보호자도 함께하여 개선될 환경에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상속으로 프로젝트 주거환경개선으로 이○○님과 전○○님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주변 환경을 하나씩 점검해 나가고 계시는 이○○, 전○○님의 ‘가정복귀’를 응원합니다.





이미용 프로그램 (11.21 / 11.24)

사회사업팀에서는 병원 생활 동안 참여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매달 이미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참여자들을 위해 약속된 시간에 방문해주심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고, 재능나눔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에는 총 78명이 이미용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셨고 마음을 함께 나눴던 본원 '12주년 개원기념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올 한해도 입원하고 계신 참여자들을 위해 한결같은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시고 본원과 함께 가치 있는 한걸음, 같이의 가치를 빛어주신 4명의 이미용 자원봉사자에게 개원기념식 선물과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항상 자리를 빛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전하다.

고객후기

가정의학과 배은숙진료부장님을 칭찬합니다^^

11/8 건강검진을 받고 12/2 결과를 들으러 갈 예정이었으나
예전에 수술한 갑상선암 림프전이가 의심된다는 전화를 미리 받고
부랴부랴 오늘 건강검진 결과를 듣고자
가정의학과 배은숙 진료부장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전화받고 5일동안 생지옥을 경험한 터라
정신도 없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대면하였는데
첫 멘트부터 긴장을 풀어줄려고 하셨는지
가벼운 조크와 함께 건강검진 항목별 리뷰를
정말 내가족의 건강을 챙기듯이 세심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진료실을 나설 무렵엔 뭔가 아픈게 다 완치된듯한 느낌이랄까..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회원가입까지 하고 글 남깁니다.

다행히 양산부산대병원 가서
림프전이가 아니라고 최종확인하여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고
이게 다 배은숙 진료부장님 덕분이 아닌가 생각까지 드네요~

배은숙 진료부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또다른 환우들을 위해 힘써주실꺼라 믿습니다!^^

2023.11.21 윤 ○○



감동을 나누다.

나눔과행복병원 방문기

갑상선 전문의로서 배우는 나눔과 행복의 가치, 이 곳 나눔과행복병원에서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임상강사 임현중

2004 - 2008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최우등 졸업
(부전공: 전기공학)
2008 - 2010 서울대학교 물리학 석사
2010 - 2013 육군사관학교 교수부 물리학 강사,
전임강사, 조교수 (예비역 대위)
2014 - 2018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2018 - 2019 서울대학교병원 인턴
2019 - 2023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전공의
2023 -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임상강사 (갑상선)

저는 올해에 전문의가 된 새내기 영상의학과 의사로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갑상선 분야 임상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의가 된 이후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해운대 나눔과행복병원은 갑상선 검진과 종양 치료 분야에서 있어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곳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배움이 절실했던 저는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에서 주최한 갑상선 고주파 연수 교육에 참여 하였는데, 행운 스투게도 백선미 병원장님을 강사 교수님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인연으로 나눔과행복병원에서 직접 진료를 참관하고 시술을 보며 병원장님께 배움을 받게 되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눔과행복병원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병원 이름이 반영하는 핵심 가치였습니다. "나눔과행복병원"은 환자를 단순한 진료 대상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환자에게 자립심을 심어 주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치를 아낌없이 나눠주려는 병원장님의 설립 의지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의미는 병원 팀장님에게 병원을 안내 받으며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망정원에서부터 생활치료실, 일상재활센터, 그리고 환자들의 빠른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병원에 놓인 실제 자동차까지, 환자들에게 자립심을 심어주려는 의지가 병원 내부 곳곳에 녹아 있었으며, 환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때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저는 영상의학과 의사로서 그동안 환자보다는 질병을 진단하는 데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백선미 병원장님의 "사람을 봅니다"라는 진료 원칙을 통해 환자들을 단순한 진료 대상이 아닌 개인으로서 존중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병원장님의 갑상선 센터 진료와 시술을 참관하는 것은 저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십년간 병원장님께서 같고 닦아온 오랜 시간의 노하우가 반영된 술기는 안전하고 적합한 시술일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를 이룬 동료 직원분들과의 원활한 협업은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숨은 노력들이 곳곳마다 반영되어 있어 또 다른 배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식과 노하우를 갑상선 의학을 갓 시작하려는 새내기 영상의학과 의사에게 나누는데 아끼지 않으신 모습은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 왔습니다.

백선미 병원장님 뿐만 아니라 나눔과행복병원에는 여러 명의 저명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특히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회장을 지내신 이준형 명예 원장님을 비롯해 손정민 센터장님, 신수영 진료과장님은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시며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주시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짧은 저널리뷰 시간을 통해 제가 전해주려 했던 내용들에서 제가 미처 깨우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되짚어 주신 이준형 교수님의 가르침은 또 다른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이틀 동안의 짧은 병원 방문이었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웠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나눔과행복병원에서 저에게 나누어 주었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저희 병원 환자들에게 더 나은 진료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기뻐고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는 위치에 있을 때, 저 또한 나눔과행복병원의 가르침을 따르며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 세세한 것 까지 배려해 주셨던 나눔과행복병원의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7세 아이 vs 아빠의 큐브대결 승자는?

정육면체 큐브, 아이에게는 얼마나 많은 면들이 있을까?

어렸을 때 큰 아이가 7살이었던 때로 기억한다. 2017년 5월, 그러니깐 6년 전 봄이다. 우리 가족은 자주 가던 짬뽕&돈가스 집에 갔다. 오랜만에 외식이다. 이곳은 매운 짜장면과 짬뽕이 일품이다. 나는 무조건 불짜장면 이었고, 아내는 짬뽕, 아이들은 돈가스와 탕수육이다. 그렇게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테이블위에 5월 이벤트 안내문이 눈에 보였다. '식사 주문 후 나오기까지 막간을 이용하여 큐브를 맞추시면 음료수를 드립니다.' 나는 예전에 공식을 외워가면서까지 큐브를 완성한 경험이 있던 터라 바로 계산대로 가서 큐브 하나를 건네받았다.

국민큐브라고 일컫는 3x3x3 큐브에도 나름 공식이 있다. 총 8단계의 공식으로 밑면 십자가 모양부터해서 차근차근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맞춘다. 녹슬지 않은 나의 뇌는 분주하게 손가락으로 명령을 지시했고, 그렇게 나는 음식이 채 나오기 전에 모든 면을 맞추었다. 500ml 사이다를 손에 넣고서 멋진 여유까지 부렸다. 별다른 반응이 없던 5살 작은아들과는 달리, 큰아들은 그렇게 큐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우리가 다시 큐브를 만지게 된 건 그해 겨울 무렵이었다.

집에 큐브가 없던 터라 그렇게 큐브에 대한 아빠의 영웅담이 있혀 가던 그해 11월, 우연히 마트에서 큰아들이 큐브를 보고 말했다. 호기심은 결국 구매로 이어졌다. 막상 덜컥 사긴 샀는데, 이 공식을 내가 어떻게 7세 아이에게 설명하지 난감했다. 관심 많은 어른들도 사실 쉽게 접근하지 않는 큐브를 고작 7살 아이에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는 상태였다. 1단계는 밑면에 흰색을 맞추는데, 십자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옆면에 흰색을....어쩌고...저쩌고...

‘내가 아 데꼬 이 뭐하는기고(부산사투리)’

안되겠다 싶어서 공식이 적힌 그림을 프린트하였다. 종이 옆에는 내가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적었다. 보기 좋으라고 손코팅까지 했다. 이쯤이면 지극적성이다. 1단계부터 8단계까지 8페이지로 만든 코딩지를 손에 든채 인내력을 가지고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그렇게 아들은 조금씩 큐브를 자기 것으로 소화시켰고, 속도는 놀라게 빨라지고 있었다. 어느새 녀석이 코딩지를 보고 성공하더니, 이후 1주일 만에 완전히 외워서 성공하고 만 것이다.

정육면체 큐브!

하나의 view point에서 최대 몇 개 면이 보일까?

3개! 6개면 중 반 이상을 볼 수 없다.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면들이 있을까?

그 중 우리는 아주 작은 한 면만을 보는 거죠.

그런데도 판단을 한다! 미워하고...

__장동선《뇌는 사람이 중요하다》(세바시 강연 766회)

큐브는 총 6면으로 이루어진 정육면체 모양을 하고 있다. 큐브를 들고 어떤 쪽에서 바라봐도 3면 이상을 볼 수 없다. 즉, 한 번의 시선으로 반대편의 3면까지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내가 순간적인 아이의 호기심에만 바라보고 7살이 어떻게 이걸 하겠냐며 지나쳤다면?

그 이후 일어날 엄청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또 그렇게 1주일 뒤 아들은 나에게 배틀 신청을 하였다. 엄마가 똑같이 섞은 후 동시에 큐브를 시작해서 누가 더 빨리 완성하는지 대결이었다.

‘하~ 같잖은 조무래기가, 이 어린노무 자식이 감히 아빠에게?’

아빠가 녹슬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보여줄 때가 왔다. 7세 아들과 아빠의 한판 승부, 100m 경기 출발전의 긴장감을 안은채 손가락을 준비시켰고, 둘째녀석의 우렁찬 소리와 함께 스톱워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결과가 판가름되는데는 120초가 채 걸리지 않았고, 어이없게도 아들이 1분57초의 기록으로 당당하게 아빠를 이겨버렸다. 그 당시 나의 최고기록이 2분30초 내외였던걸 감안하면 놀라운 발전이었다. 승부의 세계는 냉정했고. 나는 패배를 인정함과 동시에 아들을 치켜세웠다. 칭찬과 격려로 아이는 자란다고 않는가? 내 아들이어서 자랑스럽다고 연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날은 아빠로써, 어른으로써 붙은 대결에서 아들에게, 아이에게 처음 패배한 날이 되고야 말았다.

7살 아이가 아빠를 이겼다는 큰 성취감은 자연스레 큐브사랑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초등학교 입학 후 학급장기자랑에서 모든 아이들 보는데서 큐브를 멋지게 성공시켰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환호성을 질렀고, 녀석은 큐브하나로 어쩌다가 뇌섹남이 되었다. 그렇게 초등학교에는 고학년은 물론 학부모들에게까지 ‘1학년인데 큐브 할 줄 아는 아이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 후 어떻게 되었을까?

아들은 2x2x2, 4x4x4, 5x5x5, 6x6x6, 7x7x7, 메가민스크 등 다양한 큐브를 수집했고, 예정보도 없던 아빠와 함께 하나씩 배워나가며 큐브를 정복하였다. 마침내 4학년 때는 3x3x3 큐브를 35초 만에 성공하는 신기록까지 세웠다. 물론 지금은 취미삼아 큐브를 만지고, 그 열정도 많이 사그라졌다.

유대인 아빠는 직장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퇴근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하루 일과에 대해 대화를 하며, 여유가 생기면 독서를 한다. 아이들은 책을 읽는 아빠를 따라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흥내를 내고 습관을 들이게 된다. __고재학《부모라면 유대인처럼》(예담)

이 책을 읽었을 때가 큐브사건이 있었던 2017년 8월이었다. 다행히 아이가 미취학이었던 때다. 책 속 글귀를 읽고 메모한 것이 어쩔 아이와 함께하는 저녁시간을 오래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해 만난 큐브와 그때 만난 책을 통해 지금껏 퇴근해서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처음 큐브를 봤던 7살때 큰아들



책장에 진열된 다양한 큐브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월간소식지

발행일 2023년 11월 30일

편집인 홍보팀

발행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http://www.snh.or.kr>